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아드님의 혼인 잔치에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희망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잔치에 예복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환영합니다

- 안식년 중이신 김민철 다니엘 신부님(2005년 서품, 대구대교구)께서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모임 / 회의

- 사목 회의 : 10월 11일(주일), 오늘 미사 후
- 성모회 회의 : 10월 18일(주일), 차주 미사 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53.40€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337 (미사 시작)
봉헌 : 342 (제물 드리니)
성체 : 169 (사랑의 성사)
　　168 (오묘하온 성체)
파견 : 400 (주님과 나는)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월 11일)	다음 주일(10월 18일)
1독서 : 이나영 로사	1독서 : 장보인 비비아나
2독서 : 김근호 아우구스티노	2독서 : 허준영 율리오
복 사 : 정이한 다윗 / 정아인 레나	복 사 : 변가인 헬레나 /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2026년 10월 11일

(녹)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본기도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5,6-10ㄱ)
6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7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8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9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10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12-14.19-20)
형제 여러분, 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13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9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1-14)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1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8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잔치에 이웃을 초대하여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를 널리 전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저희 민족을 굽어보시어, 주님의 진리를 찾고 따르며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3. 군인 주일을 맞아, 군인들과 군종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고,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파견된 군종 사제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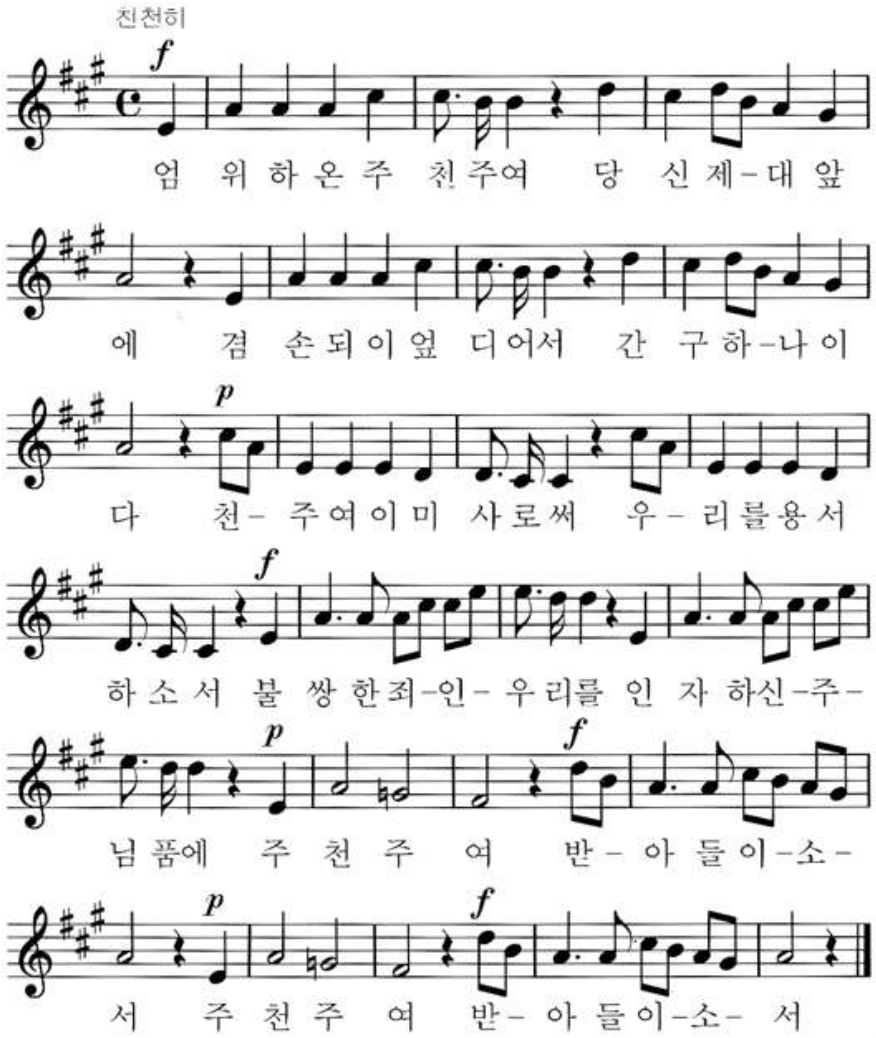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엄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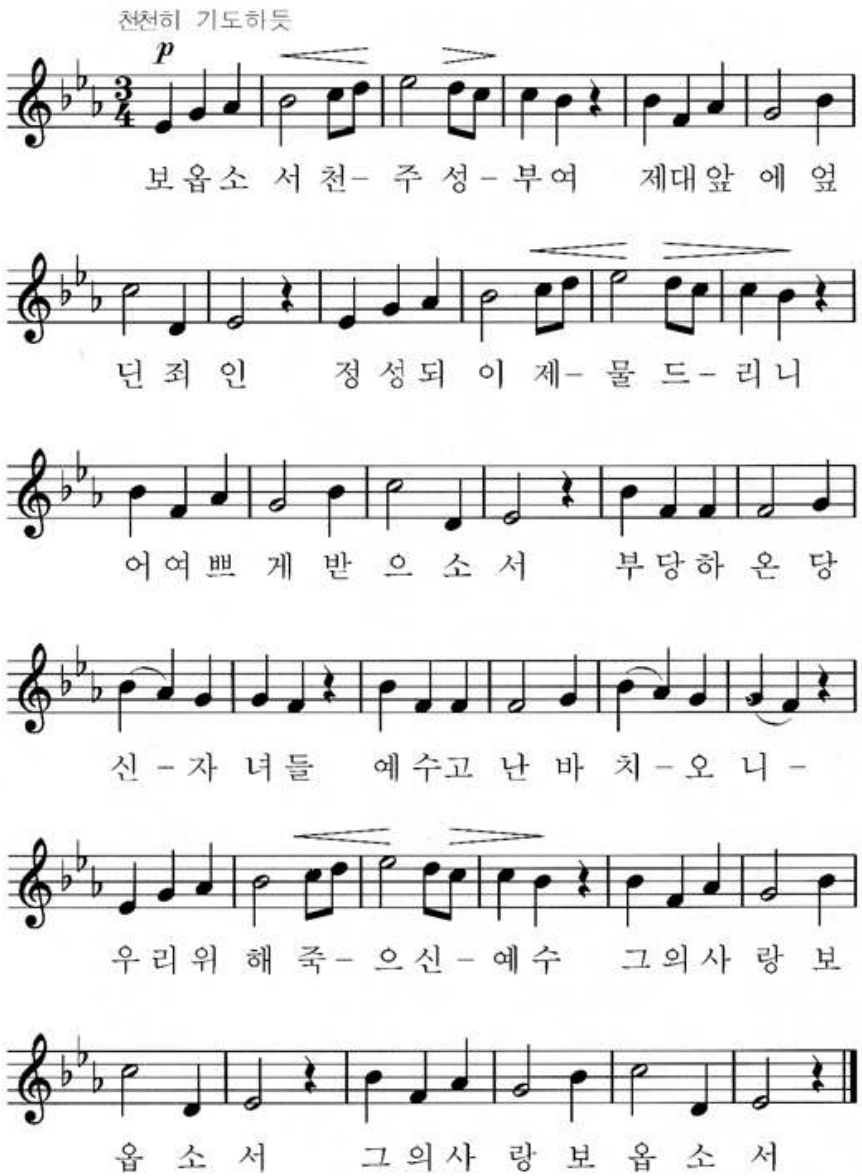
미사곡 일곱

하이든 작곡

미사 시작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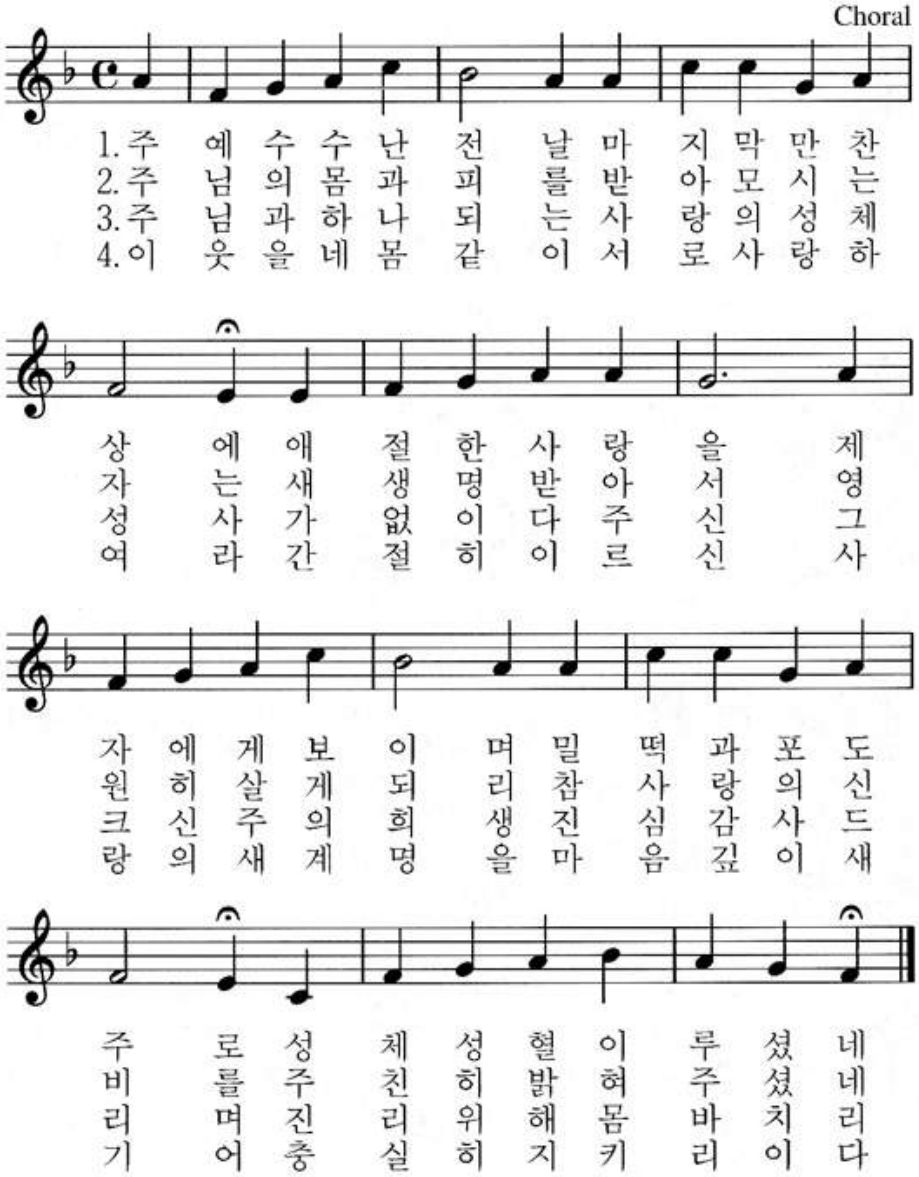
342 제물 드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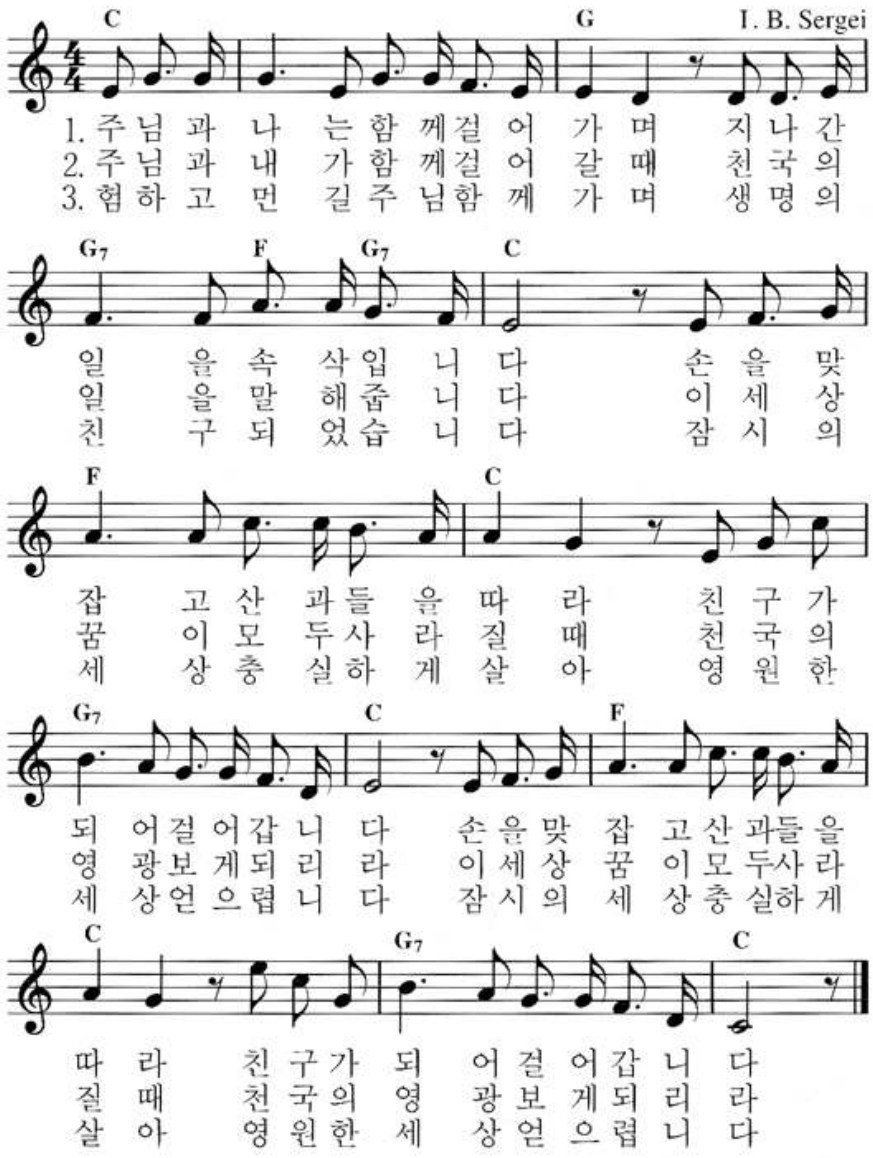


169 사랑의 성사

성체

Choral



연중

주님과 나는 400